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83 호

2023년 10월 18일

- 목 차 -

■ 협회 소식

1. Monthly Insights 10 월호 요약
2. 2023 Korea Leaders Summit 개최 안내 11.16 | 그랜드 하얏트 서울
3. 2023 년도 COP 제출 관련 업데이트 소식 안내
4. ESG 팀장급 세미나 결과 공유(9/20)
5. 2023 년도 인권/ESG/환경/반부패 실무그룹 3 차 미팅 안내(10~11 월)
6. 제 3 회 아동권리 포럼 개최 안내(10/31)
7. GEK 여성 리더스 네트워크 3 차 세션 개최 안내(11/1)
8.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ROUND II 참여 기업 모집(~12/15)

■ 본부 소식

1. SDGs 달성 가속화를 위한 Forward Faster 이니셔티브 발족
2. 물복원연합(WRC) 2030 전략 달성 가속화
3. 최고재무책임자(CFO) 30 명이 말하는 기후 행동의 기회
4. [UNGC Leaders Summit] 2030 년 절반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다
5. [UNGC Leaders Summit] 위기 속 리더십 향상
6. [UNGC Leaders Summit] 생활임금 현실화
7. [UNGC Leaders Summit] 글로벌 넷제로를 향한 정의로운 전환 가속화
8. 글로벌 과제의 불확실성 해결을 위한 기업 행동 촉구
9. 제 78 차 유엔총회 고위급 행사 주간, UNGC 각국 지역협회 민간 부문 행동 선도

■ 회원사 ESG 우수사례

[UNGC 회원사 ESG 우수사례] 네이버

■ UNGC & 회원사 뉴스

1. IBK 기업은행, 젠더본드 6 억불 발행...여성 CEO 중소기업 지원
2. 롯데, 엄마는 물론 아빠도 육아휴직 의무화... 전국에 직장 어린이집 18 개소 운영
3. '15兆 친환경 투자' HMM 의 탄소감축 어디까지
4. '플라스틱 절감에 진심' 제주삼다수...에코 패키지로 친환경 기술 초격차 노린다

■ 회원사 안내

1. 신규·재가입 회원
2. CoE 제출회원
3. UNGC 로고 사용정책
4. 한국협회 가입 안내

협회 소식

1. Monthly Insights 10 월호 요약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VOLUME 37 | October 2023

[웹에서 보기](#)

Monthly Insights



전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 지속가능성 컨퍼런스, ‘2023 UNGC 리더스 서밋’이 지난 9월 19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리더스 서밋(Leaders Summit)은 국제기구, 정부, 기업, 시민사회와 지역 협회 모든 리더십과 이해관계자를 초청하여 매년 진행됩니다. 특별히 올해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선포된 2015년 이후 달성 목표기한인 2030년까지의 중간 시점으로, SDGs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의 행동을 촉구할 수 있는 다양한 기업 지속가능성 의제를 살펴보며 인사이트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경제 위기, 불평등 증가, 정치적 불안정 등의 상황 속에서, 이번 서밋에서는 넷제로를 향한 정의로운 전환, 생물다양성, 생활임금의 실현, 기업 재무 및 비재무 통합 등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도전과 그 과제에 대해 다양한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과 논의하며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이번 Monthly Insights를 통해 2023 리더스 서밋의 핵심 세션을 선별하여 소개합니다. 본 서밋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업의 역할을 살펴보고, 귀사의 ESG 및 지속가능성 향상에 대한 해안을 얻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Monthly Insights의 주제는 ‘2023 UNGC 리더스 서밋 하이라이트, Forward Faster!’입니다. 지난 9월 19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전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 지속가능성 컨퍼런스 ‘2023 UNGC 리더스 서밋’의 핵심 세션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업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2030년까지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향한 진전을 가장 크고 빠르게 가속화할 수 있는 5대 영역에 대한 기업의 서약 이니셔티브, ‘Forward Faster’를 소개합니다.

SDG & 리더십



2030년까지 절반의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다

Halfway to 2030: Looking Back. Looking Forward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의제 달성 목표인 2030년까지의 중간 시점에서, 세계는 아직 제대로 지속가능발전의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와 유엔개발계획(UNDP), 국제경영자단체연맹(IOE), 국제상공회의소(ICC), 액센추어(Accenture)가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조사한 ‘Business SDG Stocktake’의 주요 결과를 공유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주요 조치를 파악하며, 특히 성평등, 기후행동, 생활임금, SDG 금융 및 투자, 수자원 회복탄력성 분야에서의 기업 행동을 촉구하였습니다.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

○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NFD)가 자연자본 공시 권고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권고안은 총 2년의 개발 기간과 200개 이상의 금융기관과 기업의 테스트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ISSB나 GRI 공시 기준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쿤밍-몬트리얼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K)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고안됐습니다. 또한 ISSB의 ESG 공시기준처럼 TCFD의 기본 골격을 차용해 지배구조와 전략, 위험 및 영향 관리, 지표 및 목표의 4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도 TNFD 권고안 활용에 긍정적입니다. ISSB는 지난해 12월에 열린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자연자본을 포함한 추가적인 ESG 공시기준 제정 계획을 발표하고 TNFD와 다른 기존 자연자본 관련 공시기준 활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TNFD 자연자본 공시 확정안 살펴보니...ISSB 채택 가능성 커](#)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 코너에서는 ▲TNFD 자연자본 공시 확정안 살펴보니...ISSB 채택 가능성 커 ▲'탄소세 폭탄' CBAM 보고 시작... 전문가들 “위기이자 기회” ▲ 금융권 그린워싱 규제 나선 해외 주요국, 국내 현황은? 등의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SG 최신 동향



2023 OECD '사회제도 및 성별 지수(SIGI)' 보고서

[자세히 보기](#)



청소년들의 글로벌 기후 행동 사례

[자세히 보기](#)

끝으로 'ESG 최신 동향' 코너에서는 OECD 개발센터에서 발간한 2023 '사회제도 및 성별 지수(SIGI)'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현재 거대한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변화의 촉매제가 되고 있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들의 글로벌 기후 행동 사례'에 대해 알아봅니다.

Monthly Insights 는 회원사 전용으로 제공되는 웹 매거진으로, 매월 첫째 주 수요일 회원사 실무진들에게 발송됩니다. (2023 년 10 월호의 경우 연휴로 인해 둘째주 수요일에 발송되었습니다.) Monthly Insights 와 관련한 문의 및 제안사항은 gckorea@globalcompact.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이상현 과장, 직통번호: 070-4327-9771)

자세히 보기

2. 2023 Korea Leaders Summit 개최 안내 11.16 | 그랜드 하얏트 서울



UN GLOBAL COMPACT KOREA LEADERS SUMMIT 2023

2023년 11월 16일 09:30-17:00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11월 16일,
『Korea Leaders Summit』을 개최합니다.

『Korea Leaders Summit』은 국내 최대 기업 지속가능성 컨퍼런스로서,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 국내외 지속가능성 이슈 전문가 및 기업 대표들이 연사로 참여해
기업 지속가능성을 내재화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리더들을 위해
UNGC가 추구하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ESG 전반을 아우르는 현안과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올해는 SDGs 달성 목표시점인 2030년까지 절반이 되는 해로,
『2023 Korea Leaders Summit』은 급변하는 시대에 지속가능한 전환의 길을 모색하고
SDG 달성을 위해 우리 기업들이 나아갈 길과 기여 방안을
함께 점검하고 고민하는 공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UNGC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과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여 안내

- UNGC 회원사 참여: 무료 (회원사당 최대 4인)
- 비회원사 기업 및 개인 참여: 기업 50만원 (기업당 최대 3인), 개인 20만원
- 사전 신청: [1차] 10월 20일(금)까지 [2차] 11월 3일(금)까지

| 프로그램(안)

오전

시간		프로그램
09:30 - 09:35	5'	개회사 이동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장
09:35 - 09:40	5'	축사 산다 오잠보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 (영상)
09:40 - 10:00	20'	기조연설: 기업의 SDGs 달성 기여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명예회장
10:00 - 10:10	10'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LEAD 그룹 세레모니
10:10 - 10:20	10'	CFO Coalition for the SDGs 참여사 세레모니
10:20 - 10:35	15'	평화 및 DE이를 위한 음악회 첼리스트 배범준
10:35 - 11:55	80'	특별세션: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과 기업 과제
11:55 - 12:00	5'	HeForShe 캠페인 영상 상영
12:00 - 13:15	75'	휴식 및 오찬

오후

시간		프로그램	
13:15 - 13:25	10'	특별 메시지 1: Halfway to 2030 - Refocusing on SDG	
13:25 - 14:00	35'	특별 강연 1: 포용적인 DEI 기업문화 확산 원샷한술	
14:00 - 15:10	70'	분과 세션 1 *CoREi 공동주최 공급망의 재생에너지 전환	분과 세션 2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주최 공급망 실사 의무화와 기업의 대응
15:10 - 15:20	10'	Coffee Break - 휴식 및 네트워킹	
15:20 - 16:30	70'	분과 세션 3 네이처 포지티브 달성을 위한 생물다양성 전략	분과 세션 4 지속가능금융의 활성화 방안
16:30 - 16:35	5'	특별 메시지 2: UN 반부패 협약 20주년 메시지 브리짓 스트로벨쇼 UNODC 부패 및 경제범죄 국장	
16:35 - 16:50	15'	특별 강연 2: 지속가능한 문화 산업 SM엔터테인먼트	
16:50 - 16:55	5'	럭키 드로우 이벤트	
16:55 - 17:00	5'	폐회사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문의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Tel. 02-749-2149/2150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참가 신청

서밋 참가를 원하실 경우 반드시 참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안시스템 등으로 인해 구글 링크 연결이 안될 경우 참가신청서(수기)를 작성하시어 gckorea@globalcompact.kr 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

3. 2023 년도 COP 제출 관련 업데이트 소식 안내



안녕하십니까,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 여러분.

2023년도 이행보고서(Communication on Progress, CoP) 관련 업데이트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6월,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기술적인 문제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CoP 제출을 임시 중단하였습니다. 현재 새로운 플랫폼 오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며, 10월 중순부터 CoP 제출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이용 방법에 대해서는 플랫폼 재개 전에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플랫폼을 통한 CoP 제출을 충분히 여유롭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금년도 CoP 제출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모든 CoP 제출 대상 회원사는 지속가능성 진전사항을 추적하고, 타 기업과의 비교 및 학습을 위해 2023년도 CoP를 디지털 방식으로 제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제출된 CoP를 분석해 시각화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며, 모든 회원사는 상호 벤치마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디지털 질문지를 통한 CoP 제출이 불가할 경우에는, 올해에 한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제출을 통한 CoP 대체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올해 3월에 오픈한 기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CoP 제출을 완료한 회원사의 경우, 각 회원사의 프로필에도 2023년도 CoP가 등재될 예정으로 CoP와 관련한 추가 조치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CoP 작성 중이나 아직 제출을 완료하지 않았던 회원사의 경우, 기존 응답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를 개별 메일로 송부해 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여 추후 새로운 플랫폼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출기한 및 제명 정책 관련

2023년도 CoP 제출에 적용되는 새로운 제출기한은 2023년 12월 31일입니다. 이 때까지 CoP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2024년 1월 1일에 회원사 프로필이 '미보고(Non-communicating)' 상태로 전환되어 공개됩니다. 2024년도 CoP 보고기간이 시작하기 전에 2023년도 CoP를 제출하거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등재하면 다시 '활동(Active)' 상태로 복구됩니다. 2024년도가 시작되면 미보고(Non-communicating) 회원사는 UNGC 아카데미(Academy) 자료 접근 및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되며, 다시 CoP를 제출하여 이전과 같은 '활동(Active)' 상태로 복구할 시, 제한없이 UNGC 활동이 가능합니다.

[요약]

- 2023년 10월 중순 CoP 제출 재개 예정
- 2023년도 CoP 미제출 → 2024년 1월 1일부로 '미보고' 전환
- 2023년도 CoP의 지연 제출 (2024년도 CoP 보고 기간 전에 제출) → 'Active' 상태 복구
- 2024년도 CoP 보고 기간 내 모든 영리회원사는 2024년도 CoP 제출 필요 → 'Active' 상태
- 2024년도 12월 31일까지 2024년도 CoP 미제출 → 2025년 1월 1일부로 제명(Delisted)

향후 조치 안내

- 기존 플랫폼 중단 전에 CoP 제출을 완료한 회원사는 특별히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존 플랫폼 중단 전에 CoP 질문지 응답을 작성 중이었으나 최종 제출하지 않은 회원사의 경우, 이전 응답내역을 공유할 예정이며 10월 중순에 디지털 플랫폼이 재오픈하게 되면 CoP 응답을 최종적으로 기록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도 CoP 보고를 아직 시작하지 않은 회원사의 경우, Excel/PDF 템플릿을 활용하여 귀사의 정보를 수집하고 디지털 CoP 질문지에 응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Excel/PDF 파일을 제출하지는 않으며, 최종 응답은 디지털 질문지를 통해 제출합니다.)

오랜 기간 기다려 주시고 UNGC 10대 원칙에 대해 늘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 미래 세대에 지속가능하고 긍정적인 임팩트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UNGC 본부 CoP팀(cop-support@unglobalcompact.org) 또는 UNGC 한국협회 사무처(gckorea@globalcompact.kr, 070-4327-977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UNGC 본부에서는 8월 30-31일부터 격주로 CoP 관련 Q&A 세션을 개최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회원사께서는 아래 버튼을 통해 참석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 재개되는 2023년도 CoP 제출 기간은 언제인가요?

→ 10월 중순(정확한 날짜는 추후 안내)부터 12월 31일까지로, 약 10주의 기간입니다. (2023년도 CoP 제출 시에는 2022년의 활동/데이터를 보고하시기를 권고합니다.)

❖ 기존 플랫폼의 중단 전에 CoP를 작성 중이었는데, 새로운 플랫폼에 처음부터 다시 입력을 해야 하나요?

→ 기존 플랫폼을 통해 입력하신 데이터는 새로운 플랫폼을 재개하기 전에 이메일을 통해 개별적으로 송부드릴 예정입니다. 해당 이메일을 참고하시어 새로운 플랫폼에 다시 응답을 기록 및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엑셀 질문지에 기록해 둔 답변은 어떻게 옮기면 되나요?

→ CoP 플랫폼이 재개되면, 엑셀 등 어떤 형태로든 사전에 기록해두신 답변을 디지털 질문에 직접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엑셀 파일 그대로 업로드 불가)

❖ 올해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했는데, 2023년도 CoP 제출일정에 맞춰 보고를 해야 하나요?

→ 신규 가입사는 가입한 다음 해의 CoP 제출기간 전까지 첫 번째 CoP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에 가입한 경우 올해 제출의무는 없으며 2024년도 CoP 제출기간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 UNGC 본부에서 발송되는 CoP 관련 메일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일링 리스트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우선 unglobalcompact.org 로그인 후 contact 정보가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데도 메일을 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UNGC 본부 CoP팀(cop-support@unglobalcompact.org)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oP 질문지(PDF)

CoP 질문지(Excel)

CoP 가이드북

CoP Q&A 세션 신청

※ 참고: UNGC 본부 CoP 안내 페이지 ▶ <https://unglobalcompact.org/participation/report/cop>

자세히 보기

4. ESG 팀장급 세미나 결과 공유(9/20)

[UNGC ESG 팀장 DAY] 결과공유

2023년 09월 20일

일시: 2023년 09월 20일 (수) 오후 2시~6시

장소: ENA 스위트호텔 R.ENA컨벤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지난 9월 20일, UNGC 회원사 ESG 팀장을 대상으로 2023년도 ESG 팀장 DAY를 개최했습니다. 67개 기업에서 약 60명의 팀장급 실무진이 참석한 본 세미나에서는 UNGC의 글로벌 활동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ERM 신언빈 파트너의 'New Era of Sustainability - From Surviving to Thriving(생존부터 성공까지)', LG디스플레이 임재문 팀장의 'LG Display Case Study'를 통한 ESG 경영' 발제 후, 연사 및 참여자간 Q&A 세션을 통한 질의로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UNGC 본부 및 한국협회의 활동소개와 참여사간 ESG 업무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습니다.

1. ERM의 'New Era of Sustainability - From Surviving to Thriving(생존부터 성공까지)

ERM 신언빈 파트너는 최근 ESG관련 국제 동향에 대해 소개 했습니다. 저탄소 경제로 가기 위해 각 국가들이 천연자원 경쟁을 벌이는 한편, 기업 내 재무 및 법무부서의 ESG 업무시행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TNFD 최종안 발표 내용과 다국적 기업들의 ESG 선도 현황을 공유 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내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EU(유럽연합)의 △ CSRD(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 △ SFDR(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 △ CSDDD(지속가능성 실사지침), △ 산업분류체계 (Taxonomy) 등 ESG 공시 가이드라인 및 규제를 각각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유럽 수출 및 지사 활동을 하는 기업에 있어 CSRD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중 중대성 (Double Materiality)은 환경과 기업의 상호작용에 대한 것임을 역설하였습니다.

끝으로 기업의 '생존부터 성공까지' 라는 주제로 기업의 ESG 전사적 전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덜란드 오스테드(Orsted)사 등 글로벌 사례와 함께 ESG 규제시장 대응 위주의 '스타터'에서 나아가 ESG 선도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망과 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RM신언빈 파트너



LG디스플레이 임재문 팀장

2. 기업사례 발표 – LG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임재문 팀장은 2004년 UNGC에서 발간한 'Who cares wins' 보고서에서 ESG 기원이 시작되었다고 설명하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기업의 ESG 활동이 "이해관계자(SPICE)의 신뢰(Social Responsibility) 및 ESG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기업경영활동 전반에 걸쳐야 할 종합적인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2014년 UNGC 가입이후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참여를 통해, LG디스플레이 경영전략에 이를 적용하며 ESG 전환의 시작점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기후대응, 자원 순환 등 LG 디스플레이의 ESG 9대 중점과제를 소개하고, 공급망 관리 노력의 일환으로 500개 이상의 협력사가 참여하는 RBA 관리시스템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ESG 팀장의 역할과 책임을 △ 현장을 포함한 ESG 전반에 대한 이해 △ 지표관리 능력 △ Communication Skills △ 포용성 △ 성과달성을 위한 동기부여로 요약하여 전달했습니다.

3. Q&A 세션

이어서 Q&A세션에서는 이은경 실장을 좌장으로 연사와 현장 참석자 간 기업 ESG 추진에 관한 내용 및 팀장의 역할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최근 대두되는 ESG 회의론 등을 고려한 향후 전망 △ ESG 최신 동향에 대한 학습 방법 △ ESG 위원회 등 거버넌스 수립 △ ESG 협력을 위한 부서간 협력 및 내부 리더십 설득 △ 공급망 ESG 관리 노하우 △ 공시 및 데이터 관리, 디지털화 등 ESG 업무 증대에 따른 업무 및 팀 관리 방법 등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해 토의하였습니다.

이에 △ ESG 회의론도 불구하고 IPCC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기업들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비즈니스 전환이 계속 될 전망 △ ESG 트렌드 습득을 위해 다양한 ESG관련 뉴스와 UNGC 등의 제공정보 확인, 토픽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필요성 △ ESG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 경영진과의 교감과 논의의 중요성 △ 공급망 관리에 있어 협력사와의 공동 논의 및 협력을 도모하며, 협력사 금융지원을 위한 상생펀드 등 지원 마련 △ ESG 업무 과제 정립 및 추진 시 기획, ESG, 환경, HR, 컴플라이언스 등 현업 실무팀과의 협력을 통한 과제 선정과 협업 진행 추진의 중요성 등에 대해 답변하고 논의하고 시간을 가졌습니다.



UNGC 이은경 실장



연사와의 대화



Q&A 세션

4. UNGC 활동 소개 & 섹터별 토의 및 네트워킹

이어서 UNGC 이선미 팀장이 UNGC 본부 및 한국협회 활동을 간략히 소개하고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UNGC 본부 서밋 및 아카데미, BHR, CAA, TGE 등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SDGs를 위한 CFO연합, ESG 이슈별 4개 실무그룹, GEK 리더스 네트워크, CoREi(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 Korea Leaders Summit, ESG위원회 세션 등 한국협회에서 진행하는 주요 활동들과 내년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 하였습니다. 끝으로 다양한 섹터에서 온 ESG 팀 리더 간 현황공유와 팀관리의 노하우 공유하며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습니다.

ESG 팀장 DAY에 많은 관심과 참석 감사드리며, 향후 UNGC 활동에도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

5. 2023 년도 인권/ESG/환경/반부패 실무그룹 3 차 미팅 안내(10~11 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10월 중, 4개 실무그룹별 3차 미팅을 개최합니다.
UNGC 회원사 담당자께서는 소속 실무그룹에 따라 미팅별 일정 및 주제를 확인하시고
안내에 따라 신청 및 자료를 제출(해당 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 실무그룹: 10월 13일(금) 14:00 - 17:00 | 주제 - 인권영향평가
- ESG 실무그룹: 10월 17일(화) 14:00 - 17:00 | 주제 - ESG KPI 수립 및 운영
- 환경 실무그룹: 10월 25일(수) 14:00 - 17:00 | 주제 - 환경경영 및 목표/지표 관리
- 반부패 실무그룹: 11월 2일(목) 14:00 - 17:00 | 주제 - 반부패 인센티브 및 휘슬블로잉

*반부패 실무그룹 날짜가 10/19 → 11/2로 변경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인권 실무그룹

*** 동 행사는 종료되었습니다.**

인권 실무그룹 3차 미팅에서는 「국내외 인공지능 관련 인권영향평가 동향과 기업의 과제」 및 「2023년 인권영향평가 실시 사례 및 시사점」에 대한 발표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아울러 참여사 간 올해 인권영향평가 실시 사례와 내년 착안사항 등을 공유하는 세션을 가질 예정이니,
참석하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10월 4일(수)**까지 참가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23년 10월 13일(금) 14:00 - 17:00
- 장소: 바비엔2 교육센터 D룸 (서울 중구 통일로 114, 바비엔2 3층)

시간	프로그램
14:00 - 14:05 (05')	인사말 - 유연철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
14:05 - 14:45 (40')	국내외 인공지능 관련 인권영향평가 동향과 기업의 과제 - 유승익 한동대학교 연구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입방안 연구 책임자)
14:45 - 15:05 (20')	기업과 인권 지침서 실사(Due Diligence) 가이드라인 소개 - 안일곤 UNGC 한국협회 과장
15:05 - 15:20 (15')	사례 공유 1. NAVER 인권영향평가 사례 및 시사점
15:20 - 15:35 (15')	휴식
15:35 - 15:50 (15')	사례 공유 2. 한국가스기술공사 인권영향평가 사례 및 시사점
15:50 - 17:00 (70')	참여자 간 현안 공유 - 주제: '23년 인권영향평가 실시 사례 및 시사점 등

※ 문의: 안일곤 과장 (070-4327-5057)

ESG 실무그룹

*** 동 행사는 종료되었습니다.**

ESG 실무그룹 3차 미팅은 「ESG KPI 수립 및 운영」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기업 ESG KPI 지표 설정 및 평가'에 대한 강의와 '조직 ESG KPI 운영'에 관한 기업 사례 발표를 들어본 뒤, 참여사 간 현안 공유 시간을 통해 각 기업·기관별 ESG KPI 운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나눠볼 예정입니다. 참석을 희망하실 경우 참가신청서를 **10월 6일(금)**까지 제출해주시고(기업·기관별 최대 2인), 현안 공유를 위해 'ESG KPI 운영 현황 및 계획' 관련 발표자료(3분 내외 분량)를 **10월 13일(금)**까지 gckorea@globalcompact.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23년 10월 17일(화) 14:00 - 17:00
- 장소: 바비엔2 교육센터 3층 컨퍼런스룸 (서울 중구 통일로 114, 바비엔2 3층)

시간	프로그램
14:00 - 14:10 (10')	인사말씀 및 참여사 소개
14:10 - 14:50 (40')	기업 ESG KPI 지표 설정 및 평가 - 운영창 PwC 컨설팅 Partner
14:50 - 15:20 (30')	조직 ESG KPI 운영 - 김현문 SK이노베이션 팀장
15:20 - 15:30 (10')	휴식
15:30 - 17:00 (90')	참여자 간 현안 공유 - 주제: ESG KPI 운영 현황 및 계획

※ 문의: 이상현 과장 (070-4327-9771)

환경 실무그룹

* 동 행사는 진행 예정입니다.

환경 실무그룹 3차 미팅은 「기업의 환경경영 및 목표/지표 관리」를 주제로 기업이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환경 정책 및 목표(지표)를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강의 및 사례 발표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이어 참여사 현안 공유 시간을 통해 각 기업·기관별 환경 정책을 소개하고 관련 목표(지표) 관리 현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참석을 희망하실 경우 참가신청서를 **10월 13일(금)**까지 제출해주시고(기업·기관별 최대 2인), 현안 공유를 위해 환경정책 및 목표/지표 관리 관련 발표자료(3분 내외 분량)를 **10월 20일(금)**까지 gckorea@globalcompact.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23년 10월 25일(수) 14:00 - 17:00
- 장소: ENA 스위트 호텔 R.ENA Convention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길 36, 3층)

시간	프로그램
14:00 - 14:05 (5')	인사말 - 유연철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
14:05 - 14:55 (50')	ESG 시대의 기업의 환경경영 목표 설정 및 지표 관리 - 정영일 지평 ESG센터 경영연구그룹 그룹장
14:55 - 15:15 (20')	기업 사례 발표 1 - 박가이 LG에너지솔루션 선임
15:15 - 15:35 (20')	기업 사례 발표 2 - 공병수 포스코이앤씨 차장
15:35 - 15:50 (15')	휴식
15:50 - 17:00 (70')	참여사 간 현안 공유 - 주제: 환경 정책 및 목표(지표)

※ 문의: 김예영 연구원 (02-6954-2148)

반부패 실무그룹

*** 동행사는 진행 예정입니다.**

*반부패 실무그룹 날짜가 10/19 → 11/2로 변경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반부패 실무그룹 3차 미팅에서는 「기업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K-CP) 및 안내서」 및 「휘슬블로잉 대응 및 반부패 관련 내부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사례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아울러 참여사 간 컴플라이언스 실행 사례와 반부패 관련 내부 인센티브 제도 등을 공유하는 세션을 가질 예정이니, 참석하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아래의 참가 신청서를 **10월 18일(수)**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23년 11월 2일(목) 14:00 - 17:00
- 장소: ENA 스위트 호텔 R.ENA Convention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길 36, 3층)

시간	프로그램
14:00 - 14:05 (05')	인사말 - 유연철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
14:05 - 14:45 (40')	기업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K-CP) 및 안내서 - 최승남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
14:45 - 15:05 (20')	한국지멘스 반부패 관련 내부 인센티브 제도 및 휘슬블로잉 대응 - 박종근 한국지멘스 윤리경영실 실장
15:05 - 15:20 (15')	반부패 관련 내부 인센티브 제도 및 휘슬블로잉 대응 현황 공유 (기업 사례)
15:20 - 15:35 (15')	휴식
15:35 - 17:00 (85')	참여자 간 현안 공유 - 주제: 반부패 관련 내부 인센티브 제도

※ 문의: 안일곤 과장 (070-4327-5057)

[자세히 보기](#)

6. 제 3 회 아동권리 포럼 개최 안내(10/31)



2023 아동권리포럼

제 3 회 아동권리와 기업경영원칙(Children's Right and Business Principles) 10주년 성과와 과제

2023.10.31. (화) 14:00~17:00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



참여대상

국민 누구나(사전접수 필수)



참여방법

오프라인 및 온라인 방청



사전접수

접수마감 10월 27일(금)

프로그램

- 개회사** : 정익중 원장 (아동권리보장원)
- 환영사** : 보건복지부
- 격려사** : 김성주 의원 (국회 ESG포럼)
- 축사** : 정태영 총장 (세이브더칠드런), 박형지 사무총장 (유니세프한국위원회)
- 기조강연1** : CRBP and Child Participation - Davinia Ovetv Bondi
▶ (Head of Unit, Child Rights and Business Global Hub, Save the Children)
- 기조강연2** : Child Rights as an integral component of ESG - Erik Nyman
▶ (Senior Adviser, Business Engagement and Child Rights, UNICEF)
- 주제발표** : 글로벌 인권 경영동향 및 아동인권 - 이은경 실장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ESG 경영에서의 아동권리 존중 현황 - 류현 팀장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비즈니스가 아동의 삶에 미친 영향 - 강미정 팀장 (세이브더칠드런)



Davinia Ovetv Bondi
Save the Children



Erik Nyman
UNICE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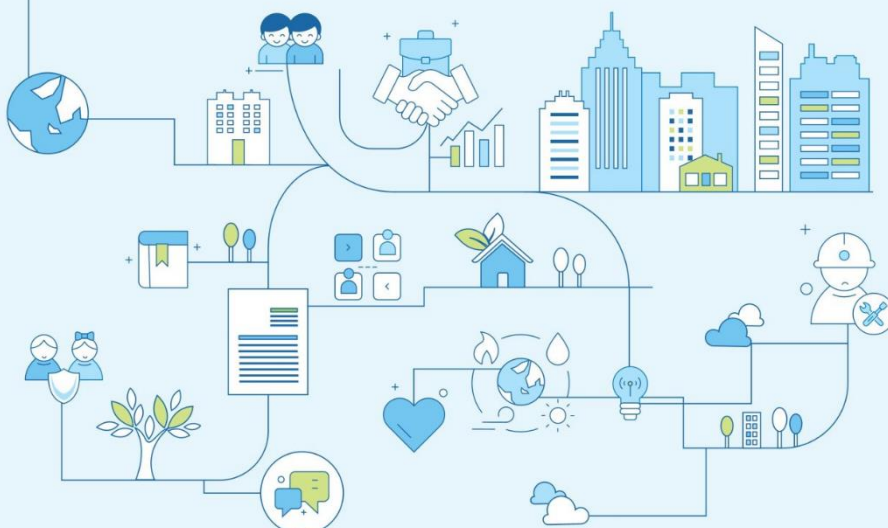
이은경 실장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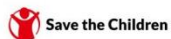
류현 팀장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강미정 팀장
세이브더칠드런



주최·주관



후원

국회 ESG포럼

자세히 보기

7. GEK 여성 리더스 네트워크 3 차 세션 개최 안내(11/1)

GEK 여성 리더스 네트워크 프로그램



GEK 여성 리더스 네트워크는 여성 리더십을 증진하고, 여성 리더들에게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자 UNGC 한국협회가 2022년 말 런칭한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1,2차 세션은 여성 관리자급 실무진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11월 1일 개최될 3차 세션은 기업 내 남녀 임직원들 모두의 성장과 상호 이해를 위한 알리쉽(Allyship)에 대해 논의하고 합니다.

따라서, 본 세션은 UNGC 회원사 임직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 3차 세션 프로그램 일정

-일시 및 장소 : 11/1(수), ENA 스위트 호텔(서울 중구 세종대로11길 36)

- 10:00 - 10:05 세션 및 연사 소개
- 10:05 - 10:45 김경일 교수 (아주대)
- 10:45 - 10:50 단체 기념사진 촬영
- 10:50 - 11:00 휴식 시간
- 11:00 - 11:35 김경록 대표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 11:35 - 12:20 런치 및 네트워킹



◆ GEK 일정

구 분	날 짜	주요 내용
1차	5/9(화)	직장내 '나' 포지셔닝 주제 강연 및 토크 콘서트
2차	6/20(화)	조직내 여성 리더 육성 방향 및 사내 포용 정책 사례 소개
3차	11/1(수)	여성 리더십 확대를 위한 남성 임직원의 지지(Allyship)

◆ 연사 소개



- 김경일 교수
- 現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現 게임문화재단 이사장
- 前 중앙심리부검센터 센터장



- 김경록 대표
- 現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대표
- 前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글로벌 오퍼레이션 수석부사장

※ 문의: 조연경 과장 (070-4327-9767, ykcho@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8.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ROUND II 참여 기업 모집(~12/15)

BUSINESS & HUMAN RIGHTS ACCELERATOR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인권 존중에 대한 약속에서 이행으로

모집 중(~12월 15일) ▶

본 프로그램은 Shift와 함께 합니다.

Shift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Business & Human Rights Accelerator)는 중대한 인권 영향을 식별하고, 지속적인 실사 절차 개발 및 실행 가능한 계획 수립을 통해 참여 기업의 인권 여정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6개월 과정의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은 워크숍 및 온디맨드 세션을 통해 인권 실사 절차를 수립하고, 고유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전 세계 40개국 이상의 지역협회에서 운영되는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은 총 여섯 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그램 전체에 걸쳐 UNGC 아카데미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네 번의 온디맨드(On-demand) 세션, 국내 참여 기업과 함께 진행되는 워크숍, 그리고 프로그램 파트너인 Shift에서 진행되는 여섯 번의 글로벌 심화 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UNGC 회원사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는 본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모집 마감일은 **12월 15일(금)**입니다.

참여 혜택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 인권 여정 중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인권 실사 여정을 진전시킬 수 있습니다.
- 인권 영향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인권 영향을 완화할 행동 계획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 고충 처리 메커니즘과 구제 절차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인권 실사 여정을 보고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 워크숍을 통해 동료 기업과 사례를 공유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수료 기준을 충족한 경우, 수료증이 제공됩니다.

참여 대상

UNGC 회원사 및 가입 의사가 있는 기업의

- 액셀러레이터 활동 및 행사에 참석할 '담당자' 2명(지속가능성, 인사, 공급망 관리, 기업 리스크 관리 관련 부서 소속)
- 프로그램 발전 및 지원 제공, 고위급 행사 참여를 위한 C-level '챔피언' 1명

프로그램 일정

내용	참여 기업 모집	런칭 세레모니	키오프 및 OT 세션	모듈 1 ~ 6
일정	'23년 9월 ~ 12월 15일(금) 1차 마감: 10월 25일(수) 2차 마감: 12월 15일(금)	'23년 11월 16일(목) Korea Leaders Summit ※ 1차 모집 기한(10.25.) 내 신청 기업에 한하여 참여 가능	'24년 2월 중	'24년 2월 ~ 6월 ※ 프로그램 내용 참조

프로그램 내용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은 총 6개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듈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온라인(UNGC 아카데미 플랫폼 내 온디맨드 세션 4회 및 글로벌 심화과정 6회), 오프라인(참여 기업 워크숍 3회)

<p>2024년 2월</p> <p>모듈 1</p> <p>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및 인권 실사에 대한 이해 증진</p> <p>온디맨드 세션 1회 글로벌 심화 과정 1회</p>	<p>2024년 3월</p> <p>모듈 2</p> <p>영향 평가를 위한 가치사슬 파악 및 잠재적 인권 영향 식별</p> <p>온디맨드 세션 1회 글로벌 심화 과정 1회 워크숍 1회(모듈 1&2)</p>	<p>2024년 4월</p> <p>모듈 3</p> <p>우선순위의 중대한 인권 영향 선정 및 해당 영향에 대한 활동 이해</p> <p>온디맨드 세션 1회 글로벌 심화 과정 1회</p>
<p>2024년 5월</p> <p>모듈 4</p> <p>우선순위 인권 영향에 대한 인권 실행 계획 수립, 적용 및 추적</p> <p>온디맨드 세션 1회 글로벌 심화 과정 1회 워크숍 1회(모듈 3&4)</p>	<p>2024년 5월</p> <p>모듈 5</p> <p>영향 받는 이해관계자에게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 학습</p> <p>온디맨드 세션 1회 글로벌 심화 과정 1회</p>	<p>2024년 6월</p> <p>모듈 6</p> <p>구제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증진</p> <p>온디맨드 세션 1회 글로벌 심화 과정 1회 워크숍 1회(모듈 5&6)</p>

※ 프로그램 일정 및 모듈별 내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본부소식

1. SDGs 달성 가속화를 위한 Forward Faster 이니셔티브 발족



세계 최대의 기업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인 유엔글로벌콤팩트(UNGC)는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를 달성하고 2030 의제 달성을 위한 기업의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Forward Faster 를 출범했습니다. Forward Faster 는 성평등, 기후 행동, 생활 임금, 수자원 회복, 금융 및 투자 등 민간 부문이 공동으로 가장 크고 빠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5개 분야에서, 측정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담대한 행동을 통해서 2030년까지 모든 SDG의 진전을 가속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이 발표한 SDG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15%만이 정상 궤도에 올랐고, 48%는 미약하고 불충분하며, 37%는 정체되거나 심지어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의 CEO 겸 사무차장인 산다 오잠보는 새로운 이니셔티브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기업이 지속가능성을 위한 행동을 취하고 있지만, 2030 의제 달성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더 이상 선언에 그치지 않고 더욱 진취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Forward Faster 는 2030 SDGs 의제 달성에 가장 크고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기업들을 안내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본 이니셔티브에 동참하는 기업은 아래 5가지 실천 영역 중 최소 한가지 영역 이상 포함하여, 총 9가지 목표에 책임감 있게 참여해야 합니다.

1) 성평등

- 2030년까지 모든 직급의 경영진에서 동등한 성 대표성, 참여 및 리더십을 달성합니다.
- 2030년까지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보장합니다.

2) 기후 행동

- 2030년까지 전 세계 탄소배출량을 절반으로 감축 및 늦어도 2050년까지 넷제로에 도달하고, 지구 온도 상승 5°C 제한 목표로 과학기반 감축 목표를 설정합니다.
- 근로자, 노조, 지역사회 및 공급업체와 같은 참여자들과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의로운 전환에 기여합니다.

3) 생활 임금

- 2030년까지 소속 기업의 전체 근로자가 생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근로자들의 생활임금 및 생활소득을 측정 가능하고 기한이 정해진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업체, 공급망 파트너 및 기타 주요 이해관계자와 공동으로 실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4) 수자원 회복탄력성

- 전세계 기업 경영 및 공급망 전반에 걸쳐 수자원 회복탄력성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가장 취약한 최소 100 개의 유역에서 바람직한 영향력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합니다.

5) 금융 및 투자

- 기업 투자를 SDG 정책 및 전략과 최대한 연계하고, 그러한 SDG 부문 투자 금액과 비율 증감에 대한 목표를 수립하고, 경과를 추적하며, 진행상황을 보고합니다.
- SDG 투자 및 성과와 연계된 기업 자금 조달 전략을 수립하고, 이러한 SDG 금융의 규모와 비율을 보고합니다.

한편, 이미 130 개 이상의 기업이 5 가지 실천 영역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Forward Faster 이니셔티브에 참여 기업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 개 이상의 유관 기관이 이니셔티브의 다양한 실천 영역에서 목표 수행을 지원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2. 물복원연합(WRC) 2030 전략 달성 가속화



물 부족 해결을 기업의 우선 과제로 삼는 CEO 주도로 발족된 물복원연합(WRC)이 글로벌 물 회복력 구축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2030 전략 관련 새로운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WRC가 출범된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시가총액 4조 8000억 달러에 달하는 35개 글로벌 기업이 140여개국에서 물 복원 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북미 전역의 물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15개 강 유역에서 물 복원을 위한 21개의 공동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 공급망, 그리고 물 부족 유역 100곳 대상 물 복원 이행 내용의 WRC 2030 목표는 지난 9월 18일 UNGC 'Forward Faster' 이니셔티브의 물 복원 목표로서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유엔 총회 주간에 열린 민간 부문 포럼에서 시작된 'Forward Faster' 이니셔티브는 성 평등, 기후 행동, 생활 임금, 물 복원, 금융 및 투자 등 5개 분야에서 민간 부문의 행동을 촉구하여, 깨끗한 물과 위생을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 6번을 포함한 모든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지대하고 신속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앞서 2023년 3월 개최된 유엔 물 회의에서도 민간 부문의 물 복원 목표가 '비즈니스 리더들의 물 복원 행동 촉구' 제하로 공표된 바 있습니다.

UNGC 사무총장이자 WRC의 공동 의장인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는 "WRC의 2030년 목표는 지난 3월 유엔 물 회의에서 이정표를 세운 것을 계기로 민간 부문의 물 복원을 위한 행동에 관해 한층 더 높은 입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라고 언급하며, "이제 더 많은 기업들로 하여금 물 복원 행동에 참여하도록 하여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 6번을 더욱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 과제입니다."라고 첨언했습니다.

전 세계 물 사용량의 3분의 1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150개사를 2030년까지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WRC는 UNGC와 태평양연구소 공동으로 발족된 'CEO 수자원 의제 촉구' 이니셔티브의 시작점입니다. 회원사들은 경영 및 공급망 관리에 있어서 수자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다른 기업, NGO 및 공공 부문 참여사들과 협력하여 공동의 행동을 통해 수자원이 부족한 유역의 물 복원을 이루는 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WRC의 '2030 전략'은 2030년까지 주요 100개 유역에서 물 복원을 이루어 30억 명에게 양질의 물을 제공하고, 3억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물, 위생, 보건(WASH)에 대한 공평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오늘 발표와 함께 에코랩, 갭, AB 인베브 등 여러 기업이 특정 유역에서 공동 행동을 위한 소집활동의 주 참여자로 활동하기 위해 '유역 챔피언'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유역 프로젝트는 기후 복원 관련 물, 위생, 보건(WASH) 부문과 더불어 자연과 사람이 상생할 수 있는 자연기반해법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계 수자원 부문 싱크 탱크인 태평양연구소의 대표이자 'CEO 수자원 의제 촉구' 이니셔티브 책임자인 제이슨 모리슨(Jason Morrison)은 "우리는 물 복원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민간 부문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하면서, "기업의 참여와 리더십 없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 6번에 도달 가능한 만큼의 물 복원을 충분히 빠른 시점내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후 변화로 인해 오염되고 부족해진 물을 함께 복원해야 합니다."라고 첨언했습니다.

100대 주요 유역 중 15곳에서 진행 중인 많은 공동 프로젝트는 수자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일찍이 관심을 가진 '유역 챔피언'들의 리더십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WRC의 첫 번째 유역 챔피언인 에코랩(Ecolab)은 캘리포니아의 '2040 물공급 격차'를 종식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가뭄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미국 콜로라도 강 유역에서 복원 활동을 앞장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코랩은 유역 챔피언으로서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캘리포니아 지역의 물 공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의 노력은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주 주지사가 발표한 '캘리포니아 물 공급 계획' 추진을 위해 필요한 민간 부문에서의 물 절약 목표에도 부합됩니다.

에코랩의 회장이자 WRC의 공동 의장인 크리스토프 벡(Christophe Beck)은 "WRC와 유역 챔피언 활동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동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이니셔티브입니다."라고 설명하며, "물 부족 해결에 대한 사업적 당위성은 분명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 6번을 달성하고 수익성 기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업의 행동이 필요합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WRC는 2022년 중반 2030 전략을 발표한 이후, 혁신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출시하고 유럽우주국(ESA)과의 협력을 통해 유역 모니터링의 디지털화를 이루었으며, 물 복원을 위해 '건강한 수자원망 프레임워크'를 시범 운영한 바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3. 최고재무책임자(CFO) 30 명이 말하는 기후 행동의 기회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와 국제기후채권기구(CBI)는 금융과 지속가능성의 연계성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 시가총액이 9,300 억 달러에 달하는 기업 최고재무책임자(CFO) 30 명과 2023 년 상반기 진행한 인터뷰를 기반으로 공동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CFO 는 기업의 저탄소 전환 과정 중 내재된 위험과 기회를 관리하고, 필요 분야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시사합니다. 또한, CFO 의 모호한 조치는 결국 기업을 물리적, 규제적, 재무적 기후 위험에 노출시키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기업 가치를 훼손하고 기업의 장기적 평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CFO 의 선제적인 조치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에게 지속가능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를 요약하면, 기후 리더로서 CFO 역할과 자질은 아래 사항을 내포합니다.

- **CFO 의 사업 이니셔티브:** CFO 는 단순히 환경적 책임을 넘어선 저탄소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소비자의 선호도, 주주의 요구사항, 그리고 기술 및 규제 등의 영향을 받는 기후 부문 다양한 요소들은 재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CFO 의 리더십:** CFO 중 30%가 저탄소 전략에 관한 개발을 착수했으며,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기후 복원력을 향상하는 데 있어서 CFO 의 중추적 역할을 시사합니다.
- **CFO 의 확대된 역할:** CFO 의 역할은 전통적으로 이어져온 재무적 역할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비재무 지표와 ESG 등급은 제품의 가격 책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CFO 가 새로운 인재 채용 등을 통해서 팀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지속가능성책임자가 CFO 에게 직접 보고하기도 합니다.
- **신뢰할 수 있는 관리자:** 비재무적 공시가 중요해짐에 따라, CFO 는 재무 정보와 비재무 정보 간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자본 유입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 **경쟁 우위 확보:** 미래 지향적인 CFO 는 저탄소 전환을 상업적, 기술적, 규제적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저탄소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구성원 모두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문별 도전 과제 대응:** 시멘트 및 철강과 같은 자본 집약적 산업은 탈탄소화에 있어서 다각적으로 도전 과제를 겪게 됩니다. 주목할만한 비즈니스 사례를 만드는 것은 이 산업의 향후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 **지속가능한 금융 촉진:** 녹색 채권 및 대출과 같은 지속가능한 금융 상품은 회사 전체의 저탄소 전략을 촉진할 수 있지만, 노선 설정과 큰 책임을 필요로 합니다. CFO는 재무 및 비재무 목표를 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새로운 지평 강화:** CFO는 탈탄소화를 가속화하고 수익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성 양성 등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예산이 제한된 소규모 기업의 경우 전환에 따른 경제성과 불확실성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한편, 기후 행동을 이끄는 CFO의 역할에 대해 UNGC 및 CBI 주요 인사들은 아래와 같이 언급했습니다.

"기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CFO는 산업계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 조 달러 규모에 달하는 기업 투자 관리자로서 CFO는 계획 수립 시 비전과 포부를 담아야 합니다." - *산다 오잠보(Sanda Ojjambo), UNGC 사무총장*

"CFO는 재무 전략의 설계자로서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기후 복원력에 관한 청사진을 설계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기후 전환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단순히 어려움에 그치는 것이 아닌, 특별한 기회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FO는 이러한 환경 변화를 통해 회사를 성공으로 이끄는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션 키드니(Sean Kidney), 국제기후채권기구(CBI) CEO*

"저탄소 전환으로 인한 위험 및 기회 관리에는, 특별한 능력을 갖춘 CFO가 적합합니다. 이번 보고서에 포함된 인터뷰를 통해 선도적인 CFO들은 저탄소 전환을 비즈니스의 필수 과제이자 전략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 *파브리지오 팔무치(Fabrizio Palmucci), 국제기후채권기구(CBI) 수석 고문*

[자세히 보기](#)

4. [UNGC Leaders Summit] 2030 년 절반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다

- 일시: 9/19(화) (9:35 AM - 10:15 M, EDT)

- 주요 연사: ▲플로라 무타히(Flora Mutahi) Melvin Marsh International Ltd 창립자 겸 대표이사(CEO), ▲볼라지 발로건(Bolaji Balogun) Chapel Hill Denham 대표이사(CEO), ▲수 올처치(Sue Allchurch) 유엔글로벌콤팩트 대외협력실장, ▲호제 마누엘 엔트르카날스(José Manuel Entrecanales) Acciona 대표이사(CEO), ▲리임 에브라힘 알 하쉬미(Reem Ebrahim Al Hashimy) 아랍에미레이트연방 국제협력부 장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의제 달성 목표인 2030 년까지의 중간 시점에서, 세계는 아직 제대로 지속가능발전의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와 유엔개발계획(UNDP), 국제경영자단체연맹(IOE), 국제상공회의소(ICC), 액센츄어(Accenture)가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조사한 ‘Business SDG Stocktake’의 주요 결과를 공유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주요 조치를 파악하며, 특히 성평등, 기후행동, 생활임금, SDG 금융 및 투자, 수자원 회복탄력성 분야에서의 기업 행동을 촉구합니다.



먼저, 수 올처치(Sue Allchurch) 유엔글로벌콤팩트 대외협력실장이 ‘Business SDG Stock Take’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며 세션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표의 85%가 걱정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미 96%의 비즈니스 리더들은 민간부문이 SDGs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업인 스스로조차도 의지(ambition)가 부족하여 아직 충분한 수준으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SDGs 목표별 경과를 살펴보면, 기업은 경제 발전과 관련된 목표(Goal 4, 7, 8, 9, 11)에는 많이 기여했으나, 환경과 관련된 목표(SDG 6, 12, 13, 14, 15)는 희생하였으며, 사회적 불평등에 관한 목표(Goal 1, 2, 3, 5, 10, 16)에 관해서도 차선으로 여겼다고 분석되었습니다. 그녀는 “CEO 가 여성인 곳은 Fortune 500 기업 중

5% 미만이며, 1/3 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만이 생활임금을 받고 있고, CDP 응답기관의 12%만이 수질오염과 관련된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기업 어닝콜(earning call)에서 SDG 언급이 2022 년에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등의 사실을 설명하며, “이것이 Forward Faster 캠페인을 런칭하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미 Forward Faster 캠페인에 서명한 150 여 기업 중 80%는 SDGs 달성을 위해 충분한 정책적 인센티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면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행동하며 각자의 생태계 내에서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남은 7 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수 울처치 실장을 좌장으로 네 명의 패널이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나이지리아 기반의 투자회사인 Chapel Hill Denham 의 **볼라지 발로건(Bolaji Balogun)** 대표이사는 자본시장에서 SDG 가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민간 자본의 1%만 SDG 가속화와 저개발지역에 투자한다면 남은 7 년의 기간 동안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말하며 민간 자본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공 및 민간 재원을 함께 활용하는 혼합금융(blended finance)을 통해 패러다임을 바꾸고, 장기 투자가 어려운 민간 자본 시장의 입장을 고려한 혁신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는 3-4 년 전 수립한 젠더 투자 플랫폼을 소개하며, 여성 직원에 대한 투자 및 젊은 여성 창업가 지원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다음으로 스페인계 인프라 및 재생에너지 기업인 Acciona 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호세 마누엘 엔트르카날스(José Manuel Entrecanales)**가 SDG 를 바라보는 입장을 공유하며 기업들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Forward Faster 캠페인의 5 개 부문에 모두 서명했다면서 “100 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기업으로서 SDG 이전에도 글로벌 문제에서 사업기회를 찾았다. 오늘날의 SDG 는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기본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마치 택소노미(taxonomy)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며, “지속가능성을 전문 분야로 삼아 SDGs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 산업이 형성되는 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책 입안자들은 기업들의 행동을 촉구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기업 스스로가 지속가능성 인센티브에 관하여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아랍에미리트연방 국제협력부 장관이자 COP28 개최 예정지인 엑스포 시티 두바이(Expo City Dubai)의 대표인 **리임 에브라힘 알 하쉬미(Reem Ebrahim Al Hashimy)** 공주가 패널토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현재 우리는 해결책(solutions)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지(will)와 모멘텀(momentum)이 부족하다”며,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모두 함께 SDG 달성의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기업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보다 보다, 민첩하고 용감하고 창의적으로 행동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마지막 패널로는 케냐 기반의 티 제조 및 판매사인 Melvin Marsh International 의 창립자 겸 대표이사(CEO)인 **플로라 무타히(Flora Mutahi)**가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자사가 제조업 평균보다 높은 여성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Forward Faster 캠페인 중 성평등 부문에 특히 방점을 두어 설명했습니다. 유능한 여성 인재 발굴 및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정책 수립 사례 등을 소개하며 향후에도 여성의 역량 개발을 위해 더욱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성평등 이외에도 남은 7년의 기간 동안 기업들이 SDG 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재점검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며 기업인들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5. [UNGC Leaders Summit] 위기 속 리더십 향상

- 일시: 9/19(화) (10:15 AM - 10:45 AM, EDT)
- 주요 연사: ▲산드라 우(Sandra Wu) 고쿠사이 고교(Kokusai Kogyo) 대표이사 CEO, ▲ 막심 팀첸코(Maxim Timchenko) 디텍(DTEK) 대표이사(CEO), 유니스 히스(Eunice Heath) 시멘트 로드스톤 홀딩스(CRH) 최고지속가능성책임자(CSO), 사로메 주라비쉬빌리(Salome Zurabishvili) 유엔글로벌콤팩트 조지아협회 사무총장, 메간 보레가드(Megan Beauregard) 이넬 노스아메리카(Enel North America Inc.) 최고법률책임자

현재 우리는 기후변화, 팬데믹, 사회 경제적 불평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전례 없는 혼란과 복합적인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상호 연결된 글로벌 위기의 급격한 증가로 비즈니스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비즈니스 리더들은 더 광범위한 역량과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본 세션에서는 비즈니스 리더들이 사례를 통해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헤쳐나가야 하는지 논의합니다.



먼저 **산드라 우(Sandra Wu) 고쿠사이 고교(Kokusai Kogyo) CEO** 는 복합적인 위기의 시대에 기업의 생존뿐만 아니라 비즈니스가 더욱 번창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며, 코로나 19 위기에는 SBT 목표를 효과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컨설팅사인 고쿠사이 고교는 팬데믹이 지속되는 4년 동안 원격 근무를 위한 디지털 기술에 투자하면서 기업이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SBT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었고 2021년에는 목표를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팬데믹 기간 동안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데 집중했다며, 그 결과 직원들의 업무 참여도와 기여도가 높아졌고 이는 비즈니스에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0년에는 고쿠사이 고교가 강력한 비즈니스 성장세를 보였고 팬데믹 기간과 그 이후에도 계속 성장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막심 팀첸코(Maxim Timchenko) 돈바스에너지회사 디텍(Donbass Fuel-Energy Company, DTEK) 대표이사(CEO)는 DTEK 는 우크라이나 전력의 4 분의 1 이상을 공급하는 에너지 업체로, 현재 우크라이나의 전력 복구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재생에너지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쟁 중에 해외 계약업체의 도움 없이 114 메가와트의 풍력 발전소를 건설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전쟁 중에도 우크라이나에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프로젝트 실현과 투자가 가능하다는 모범 사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매우 자부심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크라이나에는 수백 기가와트의 태양열 및 풍력 에너지가 건설되고 있어 앞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에너지를 대체하는 유럽의 주요 친환경 에너지 국가 중 하나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유니스 히스(Eunice Heath) 시멘트 로드스톤 홀딩스(Cement Roadstone Holdings, CRH) 최고지속가능성책임자(CSO)는 CRH 는 건축 자재 회사로서 북미와 유럽에 약 75,000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3,100 개의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100 개의 지점을 운영하면서 인재개발과 기술 향상 등의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조직 전체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시장에 출시하는 동시에 기업 운영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체적인 접근 방식으로 가치사슬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2030년까지 30%의 절대 감축 목표를 공개하며, 저탄소 솔루션을 지역별로 적용할 수 있는 인재들을 교육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메간 보레가드(Megan Beauregard) 에넬 노스아메리카(Enel North America Inc.) 최고법률책임자는 에넬이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을 계속 전환해 왔으며, 이를 위해서는 내부 이해관계자, 임직원, 투자자뿐만 아니라 전체 가치사슬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신이 맡고 있는 법무팀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규정과 컴플라이언스를 글로벌 비즈니스 거버넌스에 통합하여 에넬의 전략 전반에 기업의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세계적인 위기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또한 바로 그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여러 부서에 걸친 지속가능성에 대한 통합적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특히 법무팀이 회사의 모든 부서와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팀이라며, 법률적 관점에서 ESG 와 지속가능성 등 여러 부서를 통합하여 2030년 의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6. [UNGC Leaders Summit] 생활임금 현실화

- 일시: 2023년 9월 19일(화), 11:15 AM - 12:15 PM
- 주요 연사: ▲ 캐롤라인 리스(Caroline Rees) Shift 공동 설립자 겸 회장(President), ▲ 패트릭 벨서(Patrick Belser) ILO 선임연구원, ▲ 루크 트라이앵글(Luc Triangle) ITUC(국제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직무대행, ▲ 로베르토 수아레스 산토스(Roberto Suarez Santos) IOE(국제경영자단체연맹) 사무총장, ▲ 새미 룬드그렌(Sami Lundgren) UPM 부회장(Vice President), ▲ 알렉산드라 팔트(Alexandra Palt) L'Oreal CRO 및 L'Oreal 재단 CEO, ▲ 마이클 오코로포(Michael Okoroafor) McCormick & Company CSO, ▲ 카타리나 스텐홀름(Katharina Stenholm) DSM-Firmenich CSO, ▲ 레베카 마못(Rebecca Marmot) Unilever CSO, ▲ 피오나 드랙스트라(Fiona Dragstra) WageIndicator Foundation 이사(Director), ▲ 단 웬싱(Daan Wensing), IDH CEO 및 이사회 의장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을 보장해줌으로써 모든 기회의 기반이 되고, 또한 그 자체로 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어떻게 하면 모든 노동자가 자신과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합니다. 국제노동기구와 국제노동조합총연맹, 국제경영자단체연맹이 정부, 기업, 노동계의 입장에서의 생활임금 및 정책에 대한 발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 나갔습니다.

먼저, **패트릭 벨서(Patrick Belser) ILO 선임연구원**은 전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설명하며, 절반이 넘는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2년 이상에 한 번씩, 심지어는 5년이나 10년마다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때문에 지불 능력이 높은 기업이 주도하여 생활임금 현실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자발적인 이니셔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단체교섭이 생활임금의 현실화를 촉진하고 달성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수단일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루크 트라이앵글(Luc Triangle) ITUC(국제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이 추구하는 것은 생활임금과 더불어, 동일가치의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이라며, 사회적 대화와 단체교섭이 생활임금 결정의 첫번째 동력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다만, 단체교섭의 결과를 이행할 수 있는 법적인 프레임워크가 미비한 국가가 많은 현실을 지적하여, 무엇보다도 생활임금에 대한 기업의 실질적인 행동과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하였습니다.

로베르토 수아레스 산토스(Roberto Suarez Santos) IOE(국제경영자단체연맹) 사무총장은 국가 차원에서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성공적인 협상을 이루어낸 멕시코의 경영자 단체 ‘멕시코 비즈니스’의 사례를 설명하며,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국제노동조합과 함께 임금의 인상을 추진하였으나 완벽한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한 캄보디아의 예를 들며, 기업 자체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해관계자인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과 책임을 가질 때 성공적인 변화가 시작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기조 발제를 마치고 본격적인 패널 토론을 시작하며, 좌장을 맡은 **캐롤라인 리스(Caroline Rees) Shift 공동 설립자 겸 회장**은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입을 얻지 못하는 노동자가 전세계적으로 약 10 억명에 달한다고 밝히며, 이들이 생활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불평등이 심화되는 근본적인 요인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측정해야 하며, 생활임금 현실화 관련 진행상황을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생활임금을 향한 진전을 이루자고 제언하였습니다. 또한, Forward Faster Initiative 가 기업의 행동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써의 역할을 하며 생활임금 현실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새미 룬드그렌(Sami Lundgren) UPM 부회장은 UPM 이 생활임금을 위한 여정을 3 년 전에 공식적으로 시작하였다고 밝히며, 당시에는 생활임금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회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명확한 절차와 데이터를 보유하고, 각 국가의 현지 사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직원을 고용하여 내부 조직과 생활임금을 살펴보고, 다른 기업에서도 같은 일을 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 중인 활동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UNGC 에 가입하여 생활임금 플랫폼 관련 정보를 학습하고 공유하는 등, 일단 생활임금 실현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알렉산드라 팔트(Alexandra Palt) L'Oreal CRO 및 L'Oreal 재단 CEO 는 생활임금의 달성이 리더십의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함을 강조하며, 이러한 리더십을 비단 내부 조직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공급망 전체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예로 L'Oreal 과 함께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함을 밝히며, 기업은 생활임금 현실화에 있어 단순히 목표 설정에만 그치지 않고, 생활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에 도움이 되는 방법론을 공급업체에 제공하고 함께 노력해야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마이클 오코로포(Michael Okoroafor) McCormick & Company CSO 는 우리가 먹는 식량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는 농업공동체가 번영하는 세상을 위해서는, 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McCormick & Company 는 사람과 지역사회, 지구를 위해 옳은 일을 하면서도 최고 수준의 재무성과를 달성하자는 전략을 추진하며, 인도네시아, 마다가스카르, 태국, 인도 등지에 협동조합을 만들어 기업과 농촌공동체가 함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있음을 소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유통과정을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실질적 생산자인 여성 노동자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고, 농한기를 견딜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카타리나 스텐홀름(Katharina Stenholm) DSM-Firmenich CSO 는 기업에게 중요한 것은 노동자가 생활임금을 얻는 동시에 기업에게 필요한 자원을 얻을 수 있는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며, 이는 돈만 투입하여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공장 또는 농장 등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통해 실제로 기업에 공급되는 제품의 품질이 개선되고 공급안정성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레베카 마뫏(Rebecca Marmot) Unilever CSO 는 Unilever 가 생활임금을 확실히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100% 확신하는데 6년이 걸렸다는 것을 소개하며, 내부에서 먼저 생활임금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데이터를 확보해야, 이를 공급망 파트너십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하여 많은 대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전세계가 탈탄소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생활임금도 지속적인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 공동의 목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피오나 드랙스트라(Fiona Dragstra), WageIndicator Foundation 이사(Director) 는 WageIndicator Foundation 의 소개와 함께 기업의 공급망 내에서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협업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업, 노동조합, 고용주, 정부, 시민사회단체, 지역의

생활임금 운동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생활임금 논의에 동참하기를 바라며, 생활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협업을 모두 함께 하자고 당부하였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맡은 **단 웬싱(Daan Wensing) IDH CEO 및 이사회 의장**은 UN 에서 국제노동기구와 같은 기관을 통해 이 의제를 진전시키고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며, 특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함께 생활임금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세션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자세히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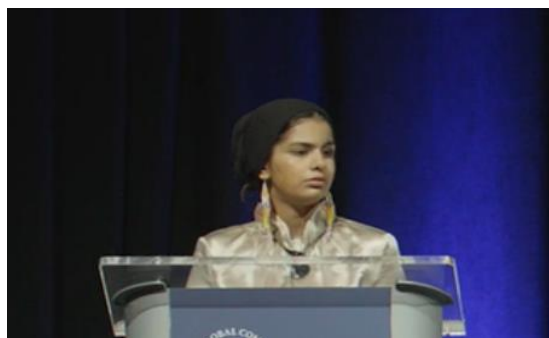
7. [UNGC Leaders Summit] 글로벌 넷제로를 향한 정의로운 전환 가속화

- 일시: 9/19 (수), 11:15 AM - 12:15 AM, EDT
- 주요 연사: ▲ 라비 페르난도(Ravi A. Fernando), 유엔글로벌콤팩트 스리랑카협회 이사, ▲ 아이샤 시디카(Ayisha Siddiqa), Polluters Out,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청년 자문단(UN Secretary-General's Youth Advisory Group on Climate Change) 위원, ▲ 아키코 나카무라(Akiko Nakamura) 시세이도 지속가능성 전략 가속화 부서 부사장, ▲ 곤잘로 사엔즈 데 미에라(Gonzalo Saenz de Miera), 이베르드롤라 기후 변화 및 얼라이언스 글로벌 디렉터, ▲ 아니 다스굽타(Ani Dasgupta) 세계자원연구소(WRI) 사장 겸 CEO

기업은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탈탄소화 노력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특히, 포괄적인 전환 계획을 발표하고 권리와 원칙에 기반한 접근 방식으로 지속가능성 관행을 정착시켜 기후 완화 및 적응 조치가 불평등을 악화시키지 않고 기후 정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세션에서는 배출량 감축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비즈니스 리더들이 정의롭고 포용적인 넷제로 전환 과정에서 직면한 도전과 기회에 대해 논의합니다.



본 세션은 라비 A. 페르난도(Ravi A. Fernando) 유엔글로벌콤팩트 스리랑카협회 이사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습니다. 페르난도 이사는 2015년에 공표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85%가 목표 이행에 뒤처지고 있으며, 최근 발간된 첫 글로벌 이행점검 보고서(Global Stocktake Report)에 따르면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한다는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넷제로 전환을 가속화하여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43% 감축해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과학기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는 것이 핵심임을 강조하며, 본 패널 세션에서 소개할 선도적인 기업 사례로부터 인사이트를 얻어가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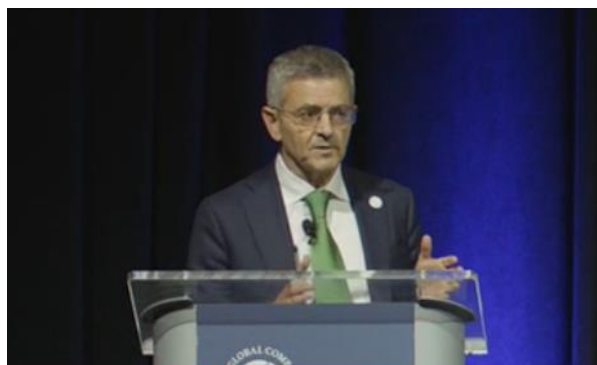


이어 Polluters Out 의 창립자이자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청년 자문단(UN Secretary-General's Youth Advisory Group on Climate Change)의 위원인 아이샤 시디카(Ayisha Siddiqa)의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시디카 위원은 자연의 균형과 섭리에 따라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이 인류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며, 기업 또한 미래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작년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홍수 등 현재의 환경 위기는 결국 사회정치적, 경제적 격변으로 이어지게 됨을 강조하며 기업이 함께 연대를 통해 인류가 초래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며 수반되는 특별한 책임을 인식하고, 2050 년까지 완전한 넷제로를 달성할 뿐만 아니라 순환경제로 전환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용감하고 포용적인 실천이 필요한 때임을 역설하였습니다.



SHISEIDO

다음 순서로는 기업의 사례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첫 기업 사례로 아키코 나카무라(Akiko Nakamura) 시세이도 지속가능성 전략 가속화 부서 부사장이 넷제로를 향한 시세이도의 약속, 행동 및 도전과제를 공유했습니다. 2022 년 창립 150 주년을 맞이한 시세이도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뷰티 혁신”이라는 모토를 기반으로 세상을 위한 새로운 가치 창출에 전념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2050 넷제로 로드맵을 공표하고 장기적인 Scope 3 목표를 설정하여 이해관계자 마인드셋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기업의 탄소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Scope 3 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환이 핵심임을 강조하며, RE100 달성 등 Scope 1+2 로부터 시작하여 가치사슬에 걸쳐 보다 지속가능한 소재 및 공정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업의 약속과 진행상황을 공개함으로써 지속가능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높이고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꾸준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Iberdrola

이어 곤잘로 사엔즈 데 미에라(Gonzalo Saenz de Miera) 이베르드롤라 기후 변화 및 얼라이언스 글로벌 디렉터는 이베르드롤라의 지속가능성 전략을 ▲Ambition(목표 수준), ▲Action(행동), ▲Advocacy(옹호), ▲Accountability(책임성)의 네 가지 축으로 소개하며 2040년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지역 사회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생물다양성에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정책 이니셔티브 및 의제 설정 과정에 활발히 참여함으로써 넷제로 전환을 향한 정책 변화에 기여하며, 지속가능성 부서뿐만 아니라 전사가 협력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현재의 변화는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라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 혁명의 일환이기에 모든 업계가 대내외적 협력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경쟁력을 더욱 확보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아니 다스굽타(Ani Dasgupta) 세계자원연구소(WRI) 회장 겸 CEO의 맺음말이 이어졌습니다. 다스굽타 회장은 기업이 변화를 주도하지 않으면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없다는 인식 하에 세계자원연구소(WRI)가 온실가스 프로토콜(GHG Protocol)을 만들고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를 구축하는 등 기업의 넷제로 전환을 지원해왔음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발간된 글로벌 이행점검 보고서(Global Stocktake Report)를 인용하여 개별 국가의 파리협정 이행상황이 저조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점진적인 변화를 넘어선 주요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기업 리더들이 장기 계획을 세울 뿐만 아니라 단기 목표를 제대로 이행하고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더불어, Scope 3 관리와 같이 가장 도전적인 분야에서 가장 큰 혁신이 나올 수 있으며,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성공과 혁신의 길임을 강조하며 본 세션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자세히 보기

8. 글로벌 과제의 불확실성 해결을 위한 기업 행동 촉구



Water.org 및 WaterEquity 의 CEO 겸 공동설립자 게리 화이트(Gary White)와 water.org 의 공동설립자 매트 데이먼(Matt Damon)은 『2023 UNGC 리더스 서밋』에서 UNGC 사무총장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 주요 기업 CEO, 유엔 기구, 정부, 시민사회, UNGC 지역 네트워크 리더들과 함께 지속가능발전목표(SDG)에 대한 기업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의 기업 역할, 원칙 기반 접근 방식의 중요성, 글로벌 동향, 그리고 2030 의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식과 파트너십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UNGC 연구보고서 『위기의 시대에 비즈니스 리더십: 최고경영자(CEO)의 성공, 도전과제, 미래 중점분야에 대한 통찰』은, 상호 연결된 글로벌 과제가 급격히 증가하며 SDGs 의 발전을 저해하고, 새로운 측면의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CEO 들은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대화와 파트너십 확대, 공평한 경쟁의 장 조성 및 자본 유치를 위한 법적 가이드라인 구축, 자연 및 청정에너지로의 균형 있는 전환을 위한 인력 양성 및 공공 투자 확대, 인공지능에 대한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2,800 명 이상의 비즈니스 리더를 대상으로 실시한 UNGC 및 Accenture 공동 발간 『글로벌 민간 부문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중 대다수(94%)의 비즈니스 리더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를 통합된 하나의 글로벌 비전으로 보고 있지만 이를 달성하려면, 각 기업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지속가능발전목표의 15%만이 정상 궤도에 올랐고, 48%는 불충분하며, 37%는 정체되거나 심지어 퇴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UNGC 는 17 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고 2030 의제 달성을 위한 기업의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Forward Faster 를 출범하였습니다.

UNGC 사무총장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는 연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지구촌의 번영과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우리는 더 빠르게 전진(Forward Faster)해 나가야 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정직한 기업을 위한 리더들의 단결』 세션에서 SDGs 를 위한 행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동력 요인으로서 ▲생활임금, ▲기후변화, ▲수자원 관리, ▲성평등, ▲SDG 투자 등에 대해 알아보았고, ▲기업 청렴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100 개 유역 대상 긍정적인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전진』 세션에서는, water.org 의 공동설립자 게리 화이트와 맷 데이먼은 성평등을 달성하고, 기후변화 회복력을 강화하며, 빈곤을 종식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 분야로서 ‘수자원’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2030 의제를 위한 기업 금융 제도의 변화 수용』 세션을 통해, ‘SDGs 를 위한 CFO 연합(CFO Coalition for the SDGs)’ 회원사들은 민간 자본 유입, 지속가능성 전환에 필요한 기업의 투자, 그리고 자본 조달에 있어 최고재무책임자(CFO)의 핵심적인 역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전 지구적 넷제로를 향한 정의로운 전환의 가속화』 세션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을 우선시하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수행하고 있는 비즈니스 리더들을 소개하였습니다. ‘생활임금의 실현’에서는 생활임금 지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현실에서 어떤 양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한편 ‘2023 임금의 형평성: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인사이트’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법률 및 조직 내에서 임금 형평성을 달성시킨 전략을 다루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비즈니스를 향하여: 기후-생물다양성 넥서스』 세션에서는 민간 부문과 주요 유관기관 대표들이 기후 및 자연 위기와 비즈니스와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자연 친화적인 기업이 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며, 자연과 생물다양성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모범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인권 및 노동권에 대한 지지 표명의 실질적 이행』 세션에서는 패널로 참석한 기업들이 취한 구체적인 조치, 인권 실사(HRDD) 실행을 통해 얻은 교훈, 인권 실사 과정이 가치 사슬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인사이트를 상호 교환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9. 제 78 차 유엔총회 고위급 행사 주간, UNGC 각국 지역협회 민간 부문 행동 선도



이번에 개최된 제 78 차 유엔 총회 고위급 행사는 올해가 2030년까지의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여정의 절반 시점임을 상기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이는 곧, SDGs 목표 달성까지의 기간 중 절반도 채 남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동 행사 계기, 안토니우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에게는 진심을 다해 체계적인 방식으로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행동 촉구의 일환으로, UNGC 각국 지역 협회의 사무총장 및 국가별 담당자들은 전 세계에서 뉴욕을 방문하여 유엔 총회에서 각종 세션을 주관하였습니다.

우선, **UNGC 브라질 협회**는 9월 13~14일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열린 브라질 기후 정상회의의 참여로 행사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어서, 14~15일 고위급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본 행사는 UNGC 브라질 협회에서 주관한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 지속가능성 회의로, 정부, 시민사회, 지속가능성 분야 전문가 등 총 1,000명 이상의 고위급 리더들이 참여하였습니다.

9월 14일에는 "과거로부터 오는 미래" 주제로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동 행사 계기 UNGC 브라질 지역네트워크의 '임팩트 아마존 이니셔티브'도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브라질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기술들을 소개하며 이러한 기술이 보다 더 효과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데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선보였습니다. 9월 15일 행사에서는 인권, 환경, 아마존 유역, 기업 거버넌스 관련 UNGC 브라질 협회의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9월 14~15일간 진행된 행사는 맨해튼의 경관을 배경으로 1,000여대의 드론을 통해 화려한 조명 쇼를 연출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뉴욕 스카이라인 너머로 연출된 "과거로부터 오는 미래(The Future is Ancestral)" 조명 쇼)

UNGC 노르웨이 협회와 노르웨이 총영사관은 9월 17일 노르웨이 기후환경부 장관, 국제개발부 장관과 함께 '공정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대한 패널 토론을 개최하여 비즈니스 리더, 이해관계자, 정책결정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9월 18일, **UNGC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협회**는 액센츄어(Accenture)와 협력하여 액센츄어 뉴욕 사무소에서 '2030을 향한 길: 북유럽 기업의 지속가능성 점검' 제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바람직한 리더십과 발전가능한 기회의 영역을 시사함으로써, 북유럽 지역의 민간 및 공공 부문 당사자들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하였습니다. 같은 날 오후, **북유럽의 협회들**은 민간 부문 파트너이자 노르웨이 최대 금융회사인 DNB와 함께 과학기반 목표 및 민관 협력에 중점을 둔 녹색 전환을 주제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습니다. 동 고위급 라운드테이블과 이어서 개최된 리셉션은 노르웨이 국제개발부 장관과 핀란드 대외무역개발부 장관 참석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9월 18일 **UNGC 덴마크 협회**는 파트너 기업 및 국회의원들과 함께 SDGs 가속화에 대한 행사 개최를 통해, UNGC 10대 원칙과 SDGs에 대한 덴마크 기업의 27개의 이행약속을 재확인하는 CEO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UNGC 캐나다 협회**와 소프트웨어 기업 SAP는 환담을 가졌습니다. 디지털 혁신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SDGs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연사들은 디지털 기술의 적용을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윤리적 기술 발전을 강조하였습니다.

9월 20일, **UNGC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협회**는 "COP15: 북유럽 기업 및 정책 전망"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같은 날, **UNGC 미국 협회**는 기업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기업 행동과 더불어 미국 기업들의 파트너십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미국 기업, UNGC, 지방정부, 시민사회, UN 고위급 리더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미국 SDG 정상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UNGC 이사회 부의장이자 유니레버(Unilever)의 전 CEO인 폴 폴먼(Paul Polman)은 개회사를 통해 "사람들이 SDGs를 더 많이 수용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본 행사는 미국 기업들이 SDGs를 추진하면서 어떻게 기업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리더십을 확립할 수 있는지 인식 확장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2023 미국 SDG 정상회의에 참석한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 UNGC 사무총장, 애덤 로이 고든(Adam Roy Gordon) UNGC 미국 협회 사무총장, 민간 부문 리더 기념사진)

마지막으로 9 월 21 일, **UNGC 조지아 협회**는 주유엔조지아대표부, 조지아 국립은행, UNGC 본부 주요 인사들과 공동으로 "지속가능성 증진: 지속 가능한 금융 중점 추진" 제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본 행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금융에 대한 중요한 도전과제를 파악하고, 다양한 부문 간의 협력을 촉진하며, 대화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였습니다.

UNGC 각국 지역협회는 기업들이 각 국가 차원에서 책임 있는 기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의 기업 지속가능성을 증진합니다. 기업들은 이번 개최된 UNGC 지역협회 행사들을 통해, 여러 기업, NGO, 정부, 학계의 이해관계자들과 현지에서 네트워킹을 하고, 지속가능성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가이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UNGC 회원사 ESG 우수 사례



■ E(Environmental) ■ S(Social) ■ G(Governance)

1. 기업 소개

1999년 검색 서비스로 시작한 네이버는 국내에서 글로벌로, 검색에서 커머스·콘텐츠·핀테크·B2B 등으로 크게 성장하였고, 검색이라는 1개의 엔진으로 구동되던 기업이 무려 N개의 엔진을 가진 기업이 되었습니다.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지면서 각 분야별 인재들도 많아졌고, 이를 통해 네이버는 강력한 팀이 되었습니다. N개의 엔진으로 구성된 거대한 조직이 마치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는 '팀 네이버'. 팀 네이버의 서비스와 기술은 글로벌 7억 명의 이용자가 이용하고 있으며, 1천 만 콘텐츠 창작자와 250만 SME도 팀 네이버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2. ESG 이행 전략 및 현황

지난 2020년, 네이버는 중장기적으로 ESG에 기반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7대 ESG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전략 과정에서는 네이버의 경영진, 이사회, 전 유관부서 등 내부 이해관계자와 국내·외 핵심 투자자 그룹, ESG 전문가 그룹, 주요 비즈니스 파트너 등 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네이버가 장기적으로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ESG 과제와 그 대응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전략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출된 네이버의 ESG 7대 전략은 네이버의 지속가능한 가치와 장기적 사업 성장에 있어 필수적인 △ ESG 가치창출, △구성원 성장, △파트너와의 상생, △지배구조 투명성, △카본 네거티브, △정보보안 및 개인 정보보호, △책임 있는 비즈니스와 관련된 목표와 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2020년 첫 수립 이후로 네이버는 매년 7대 전략과 그에 해당하는 단기, 중장기 과제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전략 성취와 달성을 위해 필요에 따라서는 방향성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업 환경과 ESG 규제 강화 동향을 파악하고, 지속가능성 내재화에 수반되는 기회와 리스크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기존의 ESG 추진전략을 새롭게 개편·고도화하여 더욱 다양하고 세밀한 7대 중장기 ESG 추진전략을 도출하였습니다.

<네이버 ESG 7대 전략>



2022년 네이버는 전략 방향성을 새로이 개편하고, 각 전략의 이행과 달성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유관 부서를 정의하고, 전략 별 유관부서 실행계획 및 경영진의 목표(KPIs)를 설정하는 등 실질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표의 이행과 달성을 위한 네이버의 노력은 매년 발간하는 네이버의 통합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3. 사례

3-1) 기후 대응을 위한 노력과 2040 카본 네거티브

- **2040 카본 네거티브** 네이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 순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Green 계획](#)'을 세웠으며,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것에서부터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2040 Carbon Negative, 2040 RE100, 2030 EV100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PPA 계약 체결, 데이터 센터 운영 효율화를 통한 유틸 전력 저감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8월 문을 연 네이버 사옥 '1784'의 국내 오피스 건물 최초 제3자 PPA 재생에너지 도입과 춘천과 세종(예정) 데이터 센터 각을 비롯해 사옥 그린팩토리과 1784 모두 국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의 최고 등급인 'LEED Platinum'을 획득한 점은 환경 경영을 위한 네이버의 노력과 실천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 **그린 커머스** 2022년 네이버는 친환경 상품의 발굴에서부터 친환경 유통망 구축까지 아우르는 '네이버 그린 커머스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골자로 한 네이버만의 그린 커머스 전략 방향성을 설정하였습니다. 2023년 초 네이버는 커머스 사업 내 환경을 포함한 ESG 기반 비즈니스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그린 커머스 전략 방향성을 개선하였습니다. 새로운 전략 방향성을 기반으로 네이버는 2025년까지 커머스 생태계 내 ESG 저변을 확대하고, 2026년부터 커머스 생태계 내 지속가능한 가치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커머스 내 ESG 내재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 배송 위크, 소상공인 대상 ESG 교육 등 커머스 부문 지속가능성 관련 성과를 담은 <네이버 그린 커머스 보고서 2022>를 2023년 6월 발간하였습니다.

3-2) 네이버 플랫폼을 꽃피우는 소상공인 및 창작자를 위한 지원과 상생

2023년 8년차를 맞이한 ‘프로젝트 꽃’은 네이버 플랫폼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과 창작자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네이버의 고유한 프로젝트이자 방향성입니다. 네이버는 2017년부터 기술과 서비스, 사업을 통해 창출하는 소셜 임팩트를 지표화한 ‘분수펀드’ 개념을 도입하여, 기부금 영역인 ‘공익 플랫폼’과 네이버 비즈니스를 통한 사회적 기여 영역인 ‘사업 플랫폼’에서의 성과를 확인하고,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공익 플랫폼에서 589.7억원, 사업플랫폼에서 398.6억원의 분수펀드를 조성하여 소상공인과 창작자를 지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는 서비스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SME의 현금 유통을 획기적으로 돕는 ‘빠른정산’과 반품 부담을 줄여주는 ‘반품안심케어’ 지원, NFA(NAVER Fulfillment Alliance)를 비롯한 물류 서비스 고도화 등 SME들에게 실질적인 사업 유지와 성장에 효과적인 지원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고금리 기조 속에서 주문 후 3일 이내 정산을 진행하는 ‘빠른정산’은 2022년 말 기준 서비스 출시 2년만에 약 17조 3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네이버는 상생을 위한 노력과 투명한 협력사 관리를 바탕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7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고, 2019년부터는 최우수 명예 기업에 선정돼 왔습니다.

3-3)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사람을 위한 AI’를 고민하는 네이버

네이버는 ‘그린인터넷’ 캠페인을 통해 인터넷 전반의 불법 게시물 근절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용자 표현의 자유와 지식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네이버 운영정책에 위반되는 유해 콘텐츠를 제한하여 디지털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이용자가 안전하게 네이버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제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운영정책에 기반한 이용자 보호활동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또한 2021년 2월, 기술 개발에 있어 ‘인간 중심 가치’를 최우선으로 한 네이버의 기업철학을 통합적으로 반영한 ‘네이버 AI 윤리 준칙’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같은 해부터 매년 서울대 AI 정책 이니셔티브와 함께 네이버의 다양한 AI기술과 서비스에 실제 AI 윤리 준칙을 적용된 사례를 살펴보는 <NAVER-SAPI AI 리포트>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AI 윤리 보고서를 통해 네이버의 사용자들과 사회구성원이 현장의 AI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AI 윤리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4. SDGs 기여 목표 및 참여 중인 글로벌 이니셔티브

EV100, RE100, CDP, UNGC 10대 원칙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참여 및 서명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또한 7대 전략의 이행을 통해 2030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네이버 7대 전략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ESG 가치창출 플랫폼 구축	 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13 CLIMATE ACTION	 3 GOOD HEALTH AND WELL-BEING	
구성원 성장 및 만족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10 REDUCED INEQUALITIES	 5 GENDER EQUALITY	 4 QUALITY EDUCATION
파트너 성장 지원 및 지역사회 상생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10 REDUCED INEQUALITIES	 4 QUALITY EDUCATION	 1 NO POVERTY
지배구조 투명성 유지 및 선진화	 5 GENDER EQUALITY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10 REDUCED INEQUALITIES	
2040 Carbon Negative 달성	 13 CLIMATE ACTION	 7 AFFORDABLE AND CLEAN ENERGY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프라이버시 권리보장 확대 및 사이버 보안 리스크 최소화	 17 PARTNERSHIPS FOR THE GOALS			
책임 있는 비즈니스 운영	 16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17 PARTNERSHIPS FOR THE GOALS		

[자세히 보기](#)

UNGC 한국협회 & 회원사 뉴스

1. IBK 기업은행, 젠더본드 6 억불 발행...여성 CEO 중소기업 지원



- IBK 기업은행은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미화 6 억불 규모의 양성평등을 위한 젠더본드(Gender Equality Social Bond)를 발행했다고 25 일 밝힘.
- 채권만기는 5 년, 고정금리 5.457%로, 중앙은행·SSA 우량투자자들의 높은 호응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발행됐다. 이번 발행한 젠더본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추진한 양성평등 채권 중 가장 큰 규모임.

더팩트

2. 롯데, 엄마는 물론 아빠도 육아휴직 의무화... 전국에 직장 어린이집 18 개소 운영



- 롯데는 국내 대기업 중 최초로 '여성 자동육아휴직제'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를 도입함.
- 가족친화제도를 통해 직원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고 더 나아가 저출산 극복에 기여한다는 취지임. 올해 기준 총 35 개 롯데 그룹사가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하고 있음.

조선일보

3. '15兆 친환경 투자' HMM의 탄소감축 어디까지



- HMM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차세대 친환경 기술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바, HMM 측은 "온실가스 규제에 적극 대응하고 화주들의 친환경 수송 요구에 부합하는 그린 서비스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힘.
- HMM의 친환경 전환 사업은 △차세대 탄소저감 선박 발주 △친환경 연료 도입 △탄소저감 기술 채택 등으로 요약됨.

파이낸셜뉴스

4. '플라스틱 절감에 진심' 제주삼다수...에코 패키지로 친환경 기술 초격차 노린다



- 국내 유일의 제주 화산 암반수인 제주삼다수는 친환경 경영 비전인 '그린 홀 프로세스'를 필두로 친환경 행보를 이어가고 있음.
- 제주삼다수는 플라스틱 절감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구축하고, 2025년까지 플라스틱 사용량을 2020년 대비 25%, 2030년까지 5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음.

뉴시스

회원사 안내

1. 신규·재가입 회원

9월 20일부터 10월 17일까지 UNGC에 가입한 신규 회원사는 3 곳입니다.

- 금호미쓰이화학 주식회사
- (주)코스메카코리아
- 부산도시공사

2. CoE 제출회원

9월 20일부터 10월 17일까지 2개 회원사가 CoE를 제출했습니다.

- 예금보험공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올해 3월 디지털 CoP 플랫폼을 오픈하고 일괄 제출기간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술적인 문제로 플랫폼 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6월 15일부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CoP 제출을 임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플랫폼을 점검하는 동안 영리 회원사는 CoP 질문지 템플릿(PDF, Excel)을 참고하여 계속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UNGC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디지털 플랫폼의 기능을 업데이트 하고 향후 단계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 회원은 기존 정책에 따라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 첫 CoE를 제출하고, 이후 2년마다 CoE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 회원사로 분류되며, 이후 1년 후에도 CoP/Co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

자세히 보기

3.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4.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 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 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